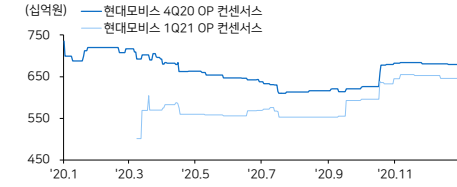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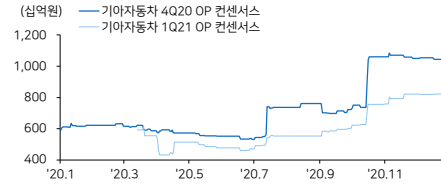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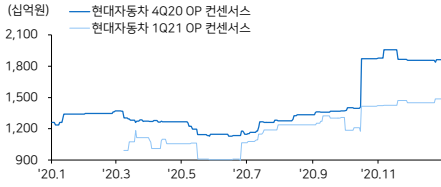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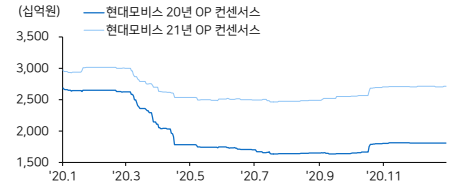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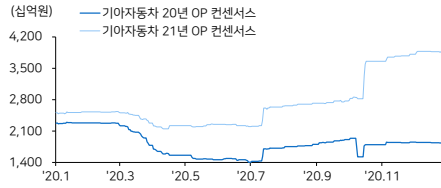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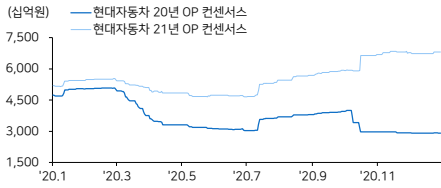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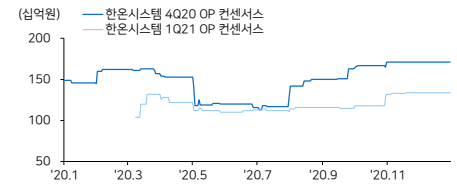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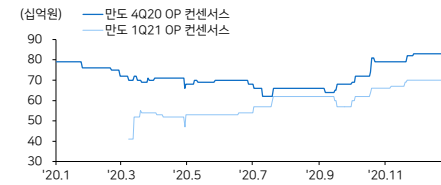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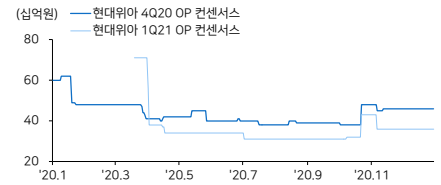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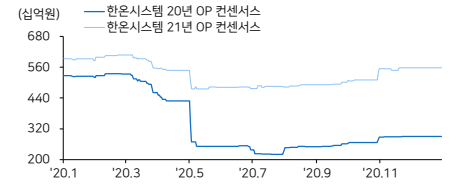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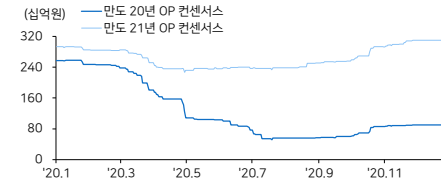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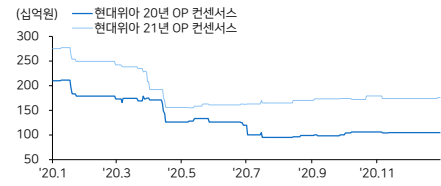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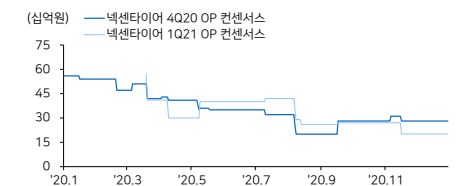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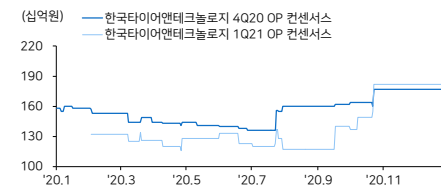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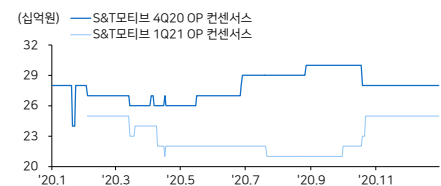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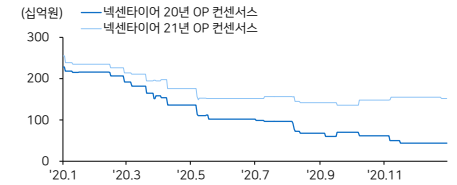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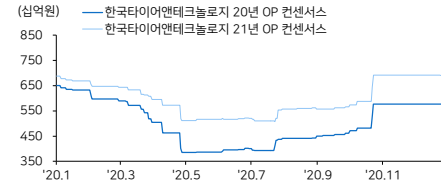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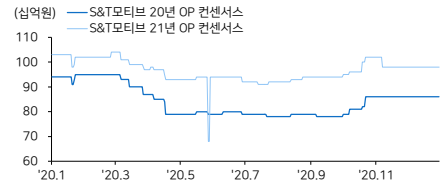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디젤엔진 개발 중단, 내연기관 엔진개발 접는다 (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가 디젤엔진 신규 개발을 전면 중단했다. 기술인 엔진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멈춘다. 40여년 이어온 내연기관엔진(ICE) 개발을 접고, 수소전기차와 순수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모빌리티 대전환에 나선다. <https://bit.ly/3i8jv7a>

주가 폭등 현대차, 올해는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하나? (매경이코노미)

현대자동차가 속된 과제인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지 재계 관심이 뜨거워졌다. 현대오일뱅크, 엔셀루프로, 오토론 등 IT 계열사를 합병하고 정 회장이 사재를 들여 미국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등 '벌써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속출 나온다. <https://bit.ly/3siXZ4q>

한온시스템 · 한화솔루션 · 효성, ESG 통합 등급 하향 (서울경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한온시스템과 한화솔루션(009830), 효성 등 3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KCGS는 지난해 10월 등급 부여 이후 올해 1월까지 확인된 ESG 관련 위험을 반영해 이번엔 등급을 조정했다. <https://bit.ly/2LiMauw>

GM 전기차 배출 사업 진출 ~ 2010년 상향후 최고 주가 (아시아경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GM)가 전기트럭 사업 진출을 선언.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열린 '소비자가전스(CES) 2021' 기조연설에서 배출용 전기 트럭 서비스 '브라이트드롭(BrightDrop)'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https://bit.ly/39os885>

기아차 스펀토, 英 '올해의 대형 SUV' 선정 (파이낸셜뉴스)

기아 스펀토가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잡지인 '2021 핫 카 어워즈'에서 '올해의 대형 SUV'에 선정. 핫 카 어워즈는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핫 카가 주최하는 자동차 시상식. 핫 카는 유럽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대표 메이저 자동차 전문 매체. <https://bit.ly/3ad0LpZ>

현대차 "세계 후반매, 코로나 이전 회복 3년 걸릴 것"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수요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79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3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 <https://bit.ly/3qfwZkp>

중국 3년째 자동차 판매량 줄고, 전기차는 고공행진 (전자신문)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3년 연속 역성장. 반면에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전기차로 기울고 있음. CPCA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1,928만8천대로 전년보다 6.8% 감소. <https://bit.ly/2XGeXeJ>

포드, 구조조정 일환 브라질에서 3개공장 폐쇄 자동차 생산 중단 (글로벌이코노미)

미국 포드자동차가 남미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브라질내 3개공장을 폐쇄하는 등 브라질 자동차 생산을 종료. 이에 따라 포드는 모두 41억달러의 세전 비용이 예상되며 이중 25억달러는 지난해 이미 처리. <https://bit.ly/3nBc0M1>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